교환학생 보고서

이름	한글	김을하	영문	Eul Ha Kim
파견 국가	캐나다		파견 대학	Niagara College

■ 교환학생에 관심 갖게 된 계기 및 지원 동기

외국의 타대학교 학생들은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 어떻게 생활하는지 궁금했었고 또한 대학에 진학하기 전과 재학 중 꼭 한번은 해외교환학생을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캐나다 교환학생 모집 공고문을 보았을 때 기숙사가 아닌 현지 캐나다인의 가정집에서 홈스테이를 한다고 하여 영어도 학습할 수 있고 현지 문화도 체험할 수 있어 매우 끌렸을 뿐만 아니라, 이번이 아니면 다시는 교환학생을 할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여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 출국 전 준비 사항과 주의할 점(상대교 서류준비, 비자발급 절차, 항공권 구입, 수강신청 및 기숙사 신청 내용 포함)

상대교 학비와 항공권 구입 및 홈스테이는 국제교류교육원과 연관되어있는 기업인 에듀글로브에서 비용만 제출하면 문제없이 처리가 되었습니다. 에듀글로브에서 학비와 항공권 초기 가격을 최대비용으로 잡아 처음에는 부담스러운 가격이 될 수도 있지만, 학비 제출할 때 현지 환율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므로 환율이 낮다면 남은 비용은 다시 돌려주기 때문에 실질적인 비용은 초기 비용보다 조금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항공권 또한 마찬가지로입니다. 캐나다 비자인 ETA발급 절차는 인터넷 검색만 하여도 무난하게 할 수 있고 또한 에듀글로브에서 상세히 설명해주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 파견대학 소개(크기, 지리적 위치, 기후, 주변 환경 내용 포함)

Niagara College는 Welland, Ontario, Canada에 위치하고 있는데 Niagara falls와 차로3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토론토와는 1시간2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크기는 금오공대보다 작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월까지는 종종 눈이 내렸고 5월에 잠깐 2~3주정도 봄이 왔다가 바로 여름이 찾아오는 기후를 가지고 있고 여름에는 한국처럼 습하지 않아 그늘에 있으면 시원합니다. Niagara College가 위치한 Welland는 공기가 맑으며 별이 잘 보이고, 주변에 공원도 많아 자연친화적인 도시입니다.

■ 수업 및 학사 관련 사항(수강과목 포함)

Niagara College에 입학하고 학생의 영어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반 배정 시험을 치르는데 Lv1부터 Lv5까지 반을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3월 초부터 4월말까지 Lv3에 배정을 받아 수업을 하였습니다. Listening & Speaking, Reading & Writing, Grammar 이렇게 총 3과목을 수강하는데 출석률, 과제, 쪽지 시험, 중간고사, 기말고사 등등 여러 가지 시험을 치르고 시험점수를 절대평가로 계산하여 산출하는데 short term학생은 50%이상 성적을 유지하면 다음 레벨로 올라갈 수 있고 일반 학생은 70%이상 성적을 유지하여야 다음 레벨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저는 80% 혹은 90%이상을 유지하여 Lv3를 패스하였는데 Lv4를 올라가니 수업이 훨씬 어려워지고 Classmate의 수준 또한 높아지므로 더욱 더 많은 학습움이 필요한 것 같았습니다.

■ 숙소 및 거주 관련 사항(기숙사비, 생활비 내용 포함)

저는 홈스테이를 했습니다. 학교 근처에 위치한 일반 캐나다인 가정집에서 홈스테이를 하였는데, 홈스테이 호스트가 정말 친절하고 저랑 취미도 유사하여 말이 잘 통하니까 영어실력도 생각보다 빨리 향상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홈스테이 비용은 한 달에 750 캐나다 달러인데 조식 중식 석식 모두 포함된 가격입니다. 근처 도시인 토론토에 가면 제가 듣기로는 식사 미포함에 750~850 캐나다 달러라고 들었습니다. 이에 비하면 Welland지역은 싼 편이라고 생각되고, 따로 밥을 먹는데 돈을 쓸 필요가 없으니 자연스럽게 지출은 줄어들게 되지만, 예들 들어 토론토에 놀러 간다든지, 놀이동산에 간다든지 학교 Activity에 참여하게 된다면 개인적인 생활비가 필요하게 됩니다. 단지 학교 Activity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는 따로 돈이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Niagara college 등록금에 학교 Activity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니 Activity 즐기는 것에서는 돈이 들지 않고 따로 Activity에서 추가로 식사를 하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돈이 추가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홈스테이 비용이 비싸다면 하우스렌트 혹은 룸렌트를 할 수도 있는데 가격은 반 정도로 저렴하지만 식비가 따로 발생하고 현지의 문화를 배울 수 없고 아마 한국인들끼리 하우스를 렌트하기 때문에 영어를 많이 사용하지 않아 영어실력 향상이 무딘 점에서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또한 주 교통수단은 버스인데, 버스비용 또한 학교 등록금에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추가로 홈스테이 비용은 한 번에 내지 않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주인이 너무나도 저랑 잘 맞을 뿐만 아니라 좋아서 망설임 없이 다 냈지만 생각보다 자기와 맞지 않는 방식을 가진 사람도 있어서 신중하게 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고, 중요한 것은 홈스테이를 바꾸려면 미리 나가기 한 달 전에 말을 해야 돈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한 달 전에 말하지 않는다면 돈을 환불을 못 받으니 미리미리 결정하셔야 합니다.

■ 파견대학 국제팀 프로그램/서비스 및 교환학생 활동 소개

대부분의 토요일마다 Activity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때로는 금요일 오후나 평일 저녁에도 있는데 아마 학교에서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려 줄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Activity 참여 비용은 학비에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Activity에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여하게 된다면 EAP 학생들 밖에 없기 때문에 다양한 국가의 친구들을 사귄 수 있고 캐나다의 문화 또한 알 수 있을 겁니다. 캐나다 교환학생은 영어 학습이 주목적이므로 수업에 참석하고 홈스테이에서 호스트와 말을 자주 한다면 비록 4개월이라는 단기간이지만 영어실력이 향상될 것입니다. 학교 서비스는 그다지 좋지 않고 일처리가 느린 편입니다. Lv4가 되었을 때 선생님 수업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고 갑자기 수준이 높아져서 공부하기가 매우 힘들어서 반을 바꿔주거나 Lv3로 내려달라고 찾아가서 말을 하였는데 더 높은 직급에 위치한 사람을 만나서 얘기해보라고 하였습니다. 더 높은 직급에 있는 사람도 말을 똑같이 하며 결국에는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계속 더 높은 직급의 사람을 만나서 상담을 하며 결국에는 최고 높은 직급에 위치한 사람까지 포함하여 5명을 찾아가서 상담하였지만 반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한 중국인은 자기의 여자 친구가 다른 반에 있어서 같이 수업 듣고 싶다는 이유로 반을 바꿨는데 저는 공부하려고 반을 바꾼다고 말을 하였지만 어떠한 이유에서인지는 설명은 듣지 못하고 그냥 "너는 Lv4에서 잘 할 수 있을 거다. 왜냐하면 Lv3에서 좋은 성적을 취득했기 때문에 Lv4에서도 잘 할 것이다." 라는 말만 수 없이 되풀이 하였습니다. 결국 저는 반을 바꾸지는 못하였고 반을 바꾸려면 금오공대 측에 서류를 보내 확인을 받고 바꿀 수 있다며 엄청나게 번거로운 절차를 요구하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 그냥 반을 바꾸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Lv4에서 수업을 들었지만 선생님의 수업방식과 저의 공부방식이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Lv3보다 수업의 난이도가 확연히 어려워져 Lv3만큼의 영어 학습효율이 나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 학교 부대시설 및 추천 하고 싶은 동아리

동아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부대시설은 Gym이나 헬스장이 있고 학교 옆에 YMCA라는 체육관이 있는데 EAP 학생이면 거기서 실시하는 과목 중 7일 무료체험이 가능하니 7일 무료체험 후 마음에 드시면 돈을 내시고 수강하시면 됩니다. 다른 부대시설 이라고 하면 도서관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고프로와 노트북도 대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프로는 1일밖에 빌리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노트북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 문화적 차이 및 향후 파견 학생들을 위한 TIP

아침은 주로 빵이나 시리얼이고 점심은 주로 샌드위치 혹은 전날 저녁 남은 것 이고, 저녁으로 고기나 파스타, 생선, 피자 등등 인데 한식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적응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매 끼마다 쌀이 있는데 여기는 쌀은 없고 반찬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캐나다 사람들은 보통 수돗물을 바로 식수로 사용하기 때문에 홈스테이 호스트한테 생수를 사달라고 요구하면 됩니다. 캐나다는 땅이 넓기 때문에 한국나이로 만16세부터 운전이 가능하여 간혹 가다 어린애들이 운전대를 잡고 있다고 해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길거리나 공원에서 술을 마시면 바로 경찰에게 체포되기 때문에 술을 마시면 안 됩니다. 술은 지정된 상점에서만 구입할 수 있으므로 일반 마트나 편의점에서 판매하지 않고 집이나 술집에서만 술을 마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퀘벡 주로 넘어가시면 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마실 수 있고 편의점이나 일반 마트에서도 주류를 판매합니다. 유의하셔서 문제 생기지 않았으면 합니다.